

## 5. '문화연구'와 대중문학 텍스트

그러나 '문화연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비정전 문학 또는 대중문학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해석이다. 이스트호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조셉 콘라드 Joseph Conrad의 『암흑의 핵심 *Heart of Darkness*』과 에드가 라이스 버러스 Edgar Rice Burroughs의 『유인원 타잔 *Tarzan of the Apes*』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두작품은 우선 서구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소설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식민주의 계열의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두 작품은 똑같이 스스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컨대 『암흑의 핵심』은 “우리(유럽인들)도 그들(아프리카인들)만큼이나 어둡고 야만적이며, 우리 문명인들도 마음 속 깊이에는 저들의 외면만큼이나 어두운 암흑이 어둡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콘라드의 소설은 유럽(문명)의 어두움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아프리카인(야만)의 밝음을 인정하는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그가 유럽인과 문명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프리카인과 야만은 여전히 '암흑의 핵심'일 뿐이다.

『유인원 타잔』에서도 역시 비슷한 한계가 발견된다. 예컨대 타잔은 자연(야만)의 질서를 파괴하는 제국주의적 백인들에 맞서 밀림의 평화를 지킨다. 유럽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 역시 똑같이 사악하고 위협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타잔』에도 역시 백인인 타잔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유럽인과 원주민과 원숭이가 자리하는 위계질서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만을 놓고 볼 때에는 『암흑의 핵심』이나 『타잔』 사이에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텍스트를 정전과 비정전, 또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학으로 갈라놓는가? 이스트호프는 그 구분의 근거를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표를 제시한다.

『어둠의 속』	『타잔』
추상성	구체성
복합성	단순성
함축적 의미	외연적 의미
비유성	축어성
의미의 지연성	의미의 즉시성
암시성	명시적
다원성	단성성
도덕적 성찰	신체적 행동

언어적	시각적(도상적)
아이러니	비아어러니 <sup>19)</sup>

위 도표에 의하면, 『어둠의 속』과 『타잔』을 갈라놓는 것은 다름 아닌 텍스트성과 내러티브의 양식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술이란 왼쪽 칼럼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이분법적 가치판단에 의해 서열이 생기게 되고, 둘 중 하나는 중심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그와같은 무의식적 관념과 반응이 모더니즘과 신비평에 의해 세뇌된 것의 결과라면? 그리고 그와같은 양분법적 구분과 서열이 모더니스트들과 신비평가들이 임의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그러한 의문과 회의를 갖는 순간, 우리는 위 구분이 사실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트호프는 『타잔』을 전통적인 모더니즘적 읽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즉 모더니즘적인 읽기가 도외시켰던 대중문학 텍스트의 긍정적 요소들—예컨대 시각적인 속성 같은 것—을 밝혀내어 부각시키면 관습적인 평가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굳이 모더니즘적 읽기에 의해 작품을 판단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스트호프는 영상매체가 20세기에 발전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거기 매혹되었다기 보다는, 대중문화 속에 이미 ‘시각적 재현’과 ‘영상적 속성’이 들어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종래의 모더니즘적 읽기는 대중문화의 그와같은 속성을 읽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중문화를 읽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곧 수정된 모더니즘적 읽기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레슬리 피들러 Leslie A. Fiedler는 난해해서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읽지않는 고급 소설 보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감동을 받는 소위 중류소설이 더 가치있는 문학이 아니겠느냐고 말한다.<sup>20)</sup> 그런데 『어둠의 속』은 바로 위와같은 장치들로 인해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게도 어렵게 느껴지는 반면, 『타잔』은 누가 읽어도 즐겁고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대중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잔』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경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 6. ‘문화연구’의 문제점과 전망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문화연구’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Easthope, 앞 책, p.89.

20) Leslie A. Fidler. *What Was Literature?*(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중 “Toward Pop Criticism”과 “What was the Novel?”과 “What was the Death of the Novel?”을 볼 것. pp.34~37, 53~56, 73~82.

1. 정전의 독선과 횡포에 제동을 걸고 비정전 타자를 포용한다.
2. 고급문화/고급문학과 동시에 대중문화/대중문학도 인정한다.
3. 경직되고 닫혀있는 남성적인 문학연구에 반해 유연하고 열려있는 여성적인 문화연구를 제안한다.
4. 외국문화/외국문학에 대항해 민족문화/민족문학을 고양/함양시킨다.
5. 그와 동시에 국제적인 시각으로 문화를 읽고,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지양한다.
6. 지배계급(제도) 대신 피지배계급(제도의 억압대상)을 조명한다.
7. 문화 속에 감추어진 이데올로기와 담론행위를 읽어내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8. 탈중심적이고 상대적이며 다성적이다.
9. 학문 및 장르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학제간 연구와 비교문화/비교문학적 접근을 장려한다.
10. 아카데미(학문, 상아탑)와 비아카데미(일상, 커뮤니티)의 조화를 추구한다.
11. 저자(예술가) 중심 텍스트를 독자(대중) 중심 텍스트로 전환시킨다.
12. 문학과 예술의 특권과 신비성을 부인하고, 그것을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로 끌어내린다.

그렇다면 ‘문화연구’의 이와같은 속성과 제안에 따라, 그동안 모더니즘과 신비평적 정전중심으로 짜여져온 대학 영문과의 교과과정을 개편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정전 텍스트들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대중문학으로 여겨져 온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조명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문학 텍스트와 더불어 관련 문화 텍스트들—예컨대 잡지, 광고, 텔레비전, 영화, 신문, 만화, 대중가요 등—에 대한 폭넓은 고찰과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문학연구 분야의 지평과 한계를 넓혀주며, 문화연구를 활성화시켜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모더니즘이나 신비평이 제시해준 정전 텍스트들만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가르쳐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문화연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호소력있게 들린다.

It is almost unbelievable that the poetry of Pound and Eliot, poetry of seventy years ago, is still widely taught by literary study as though it were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must take the contemporary as its point of departure—this morning’s issue of *the Sun* newspaper, this month’s television programme, this year’s Hollywood blockbuster—in studying an object which is always changing.

70년도 더 된 파운드와 엘리엇의 시들이 마치 동시대의 작품이나 되는 것처럼 여전히 문학연구에 의해서 널리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놀라운 일이다. 문화연구는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대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동시대적인 것들—예컨대

오늘 아침 『선』지의 기사, 이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금년도 할리우드의 히트작 등 -을 그 시발점으로 삼아야만 한다.<sup>21)</sup>(Easthope, 1991, p.168).

또 종래의 문학연구는 과거를 완벽하고 이상적인 질서로 파악하고 전통을 이미 완결된 완성품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거기에 어떤 유연함이나 변화의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연구’는 과거를 심문하고 전통을 회의하며 부단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정전의 개념이 주로 ‘서구의 위대한 문학적 전통’ 위에서 결정된 것이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시각으로 정전을 재조정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연구’는 또 그동안 고급 문학 텍스트에게만 적용되었던 학문적 접근이나 이론적 해석을 일상 문화 텍스트에도 적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고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연구’는 추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있던 상아탑의 논의를 구체적인 거리로 끌어내어 일상 현실과 대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문학과 예술은 비로소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세속적 비평 Secular Criticism’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는 몇가지 문제를 수반한다. 예컨대 대중문학의 그늘 속에 숨어있는 작품들 중에는 정말로 능력없는 작가들의 저질 쓰레기들도 있다. 그러한 질 낮은 작품들이 대중문학의 탈을 쓰고 교과과정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을 제도적인 여과 장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과연 어떤 잣대로 그러한 아류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별작업에 혹시 또다른 독선과 편견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그래서 피들러는 고급문학도 아니고 하류문학도 아닌 진정한 ‘중류문학’을 주창하며, 오랜 세월이 걸쳐 검증받고 인정받아온 『툼 아저씨의 오두막 *Uncle Tom's Cabin*』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같은 작품을 그 바람직한 예로 제시한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두고두고 읽히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작품들이야말로 진정한 ‘불후의 명작’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sup>23)</sup>

또 ‘문화연구’는 정전의 무조건적 폐지가 아니라, 정전과 더불어 대중문화 텍스트도 같이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둘의 공존을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연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바대로, 정전의 완전 폐지는 불가

21) Easthope, 앞 책, p.168.

22) Edward W. Said, “Secular Criticism”,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Cambridge: Havard UP, 1983), pp.1~20.

사이드는 이 책의 「세속적 비평」이라는 장에서 문학비평은 상아탑에서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다 더 세속화되고 보다 더 현실에 오염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문학이나 문학비평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다.

23) Fiedler, 앞 책, pp.196~212, 157~67, 168~78.

능하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쳐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선별작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선별작업 중 어떻게 고급문학 텍스트와 대중문화 텍스트를 적절히 선택하고 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연구'의 그와같은 문제점들은 본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대체로 방법론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문화연구'의 취지나 이념만큼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연구'의 이념과 취지를 살려 연구와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골라,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문화연구'가 앞으로 성찰하고 연구해서 제시해야만 되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Bibliography

- Ashley, Bob. *The Study of Popular Fiction: A Source Book*. London: Pinter Publishers, 1989.
- Barthes, Roland. *Mythologies*. New York: Hill and Wang, 1972.
- Bennet, Toni. *Popular Television and Film*. London: Open UP, 1981.
- Culler, Jonathan. *Structuralist Poetics*. Ithaca: Cornell UP, 1975.
- Easthope, Antony.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1.
- Fiedler, Leslie A. *Tyranny of the Normal: Essays on Bioethics, Theology & Myth*. Boston: David R. Godine, 1966.
- \_\_\_\_\_. *What Was Literatu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 Foster, Hal, ed. *The Anti-Aesthetic: Essays on Postmodern Culture*. Port Townsend: Bay Press, 1983.
- Hawkins, Harriet. *Classic and Trash: Traditions and Taboos in High Literature and Popular Modern Genr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0.
- Heath, Stephen. *Questions of Cinema*. Bloomington: Indiana UP, 1981.
- Leavis, F. R. *Mass Civilization and Minority Culture*. London: Falcroft Library Editions, 1974.
- Said, Edward W.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Harvard UP, 1983.
- Slemon, Stephen. "Monuments of Empire: Allegory/Counter-discourse/Post-colonial Writing," *Kunapipi*, 9:3(1987):1~15.
- Wood, Michael. *America in the Movies*. New York: Columbia UP, 1975.

■ Abstract

## On Potential Expansion of Literary Study through Cultural Studies

Seong-Kon Kim

Established in higher education as a dominant discourse, literary study has exercised a powerful hegemony in the academy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t proclaimed that it could provide the core for a modern education in the humanities by practicing the old ideal of humanist education, that is to say, producing a gentleman and a scholar in a Christian society. In the meantime, the institution of literary study has rested on a relatively secure and unchallenged foundation of literary canon and highbrow culture of the elite.

Recently, however, literary study as a privileged canon was challenged, fell into crisis, and finally collapsed. And it is now being transformed into the so-called broader Cultural Studies which incorporates both canonical literary texts and non-canonical cultural texts. Cultural studies suggests that literary study embrace popular culture, such as film, television, video, advertizing, pop songs, comics, and popular novels, all of which as a social document faithfully registers the *Zeitgeist* of the times and permeates everyday experience and life. As a result, the distinction between canonical texts and non-canonical ones became eroded.

As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high and popular culture on which literary study is founded becomes under attack, Cultural Studies steps aside from elite literature and includes the texts of everyday life in its object of study, considerably broadening the horizon of the field of literary study. In the past, literary study dismissed popular texts as something that seriously lacks imagination and unity. Cultural Studies argues, however, that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a system of ‘deep’ or ‘close’ reading previously practised only on canonical texts to popular non-canonical texts.

Cultural Studies thus opens up a whole new possibility for studying and teaching literature and culture, even though it entails some unsolved methodological problems in practice. Opening up the canon by Cultural Studies seems to be inevitable in this age of

popular culture and so does the collapse of the old paradigm of literary study based on the privileged center of canonical texts and highbrow literature. Cultural Studies, then, could be a new paradigm for the future of literary study, which would significantly enlarge the scope of literary study.